



[산업]
폴체인지 '올 뉴 K3'
새 심장으로
경차급 연비 실현
08



Economy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 (2395.19, +9.81), 코스닥 (829.39, -13.85), 금리 (2.28, -0.02), 환율 (1084.50, -0.10).

# GM 군산공장 폐쇄 쇼크... 'Made in Korea' 저무나

직원 2000여명 구조조정
크루즈·올란도 모델 단종
카허카점 사장
“직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13일 오전 폐쇄가 결정된 제네럴모터스(GM) 전북 군산 공장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이 결국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다.

13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3위 완성차 업체인 한국지엠의 공장 폐쇄 방침은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전북 군산 지역 경제도 패닉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 군산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2000여명(계약직 포함)의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또한 군산공장에서 생산했던 크루즈와 올란도 모델도 단종될 전망이다. <관련기사2·3면>

GM과 한국지엠은 5월 말까지 군산 공장 폐쇄와 직원 약 2000명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본사가 현재의 생산설비 등을 유지한 채 회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경영난 극복을 위한 대표적 첫 자구 노력을 위해서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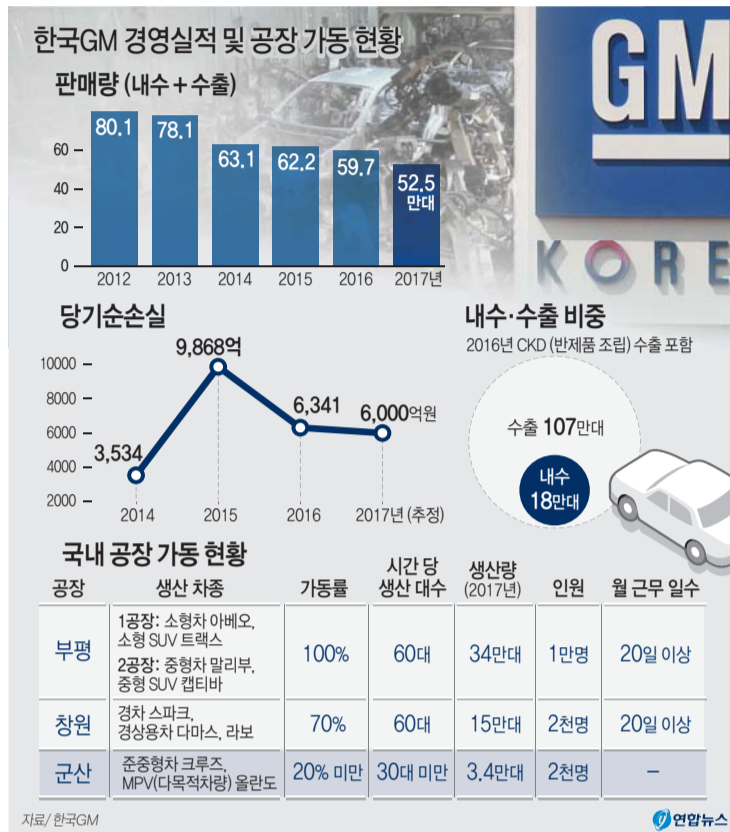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은 모기업인 GM의 한국지엠 구조조정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그동안 한국지엠의 실적 악화와 판매 부진으로 단행될 구조조정의 1순위로 군산공장이 꼽혀왔다. 크루즈와 올란도 등을 생산해온 군산공장은 그동안 생산물량 부족으로 조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최근 가동률이

20%를 밑돌면서 지난 8일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카허 카점 한국지엠 사장은 “해당 조치는 한국에서의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최근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지엠 임직원과 군산 및 전북 지역 사회, 정부 관계자의 헌신과 지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지엠은 노동조합, 한국 정부,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한국 내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독자여러분 무술년 파이팅하세요” “황금 개띠 해 ‘무술년’ 메트로 독자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메트로신문 새내기 기자들(왼쪽부터, 정연우·구서운·임현재·나유리·유재희·김현정)이 한복 자태를 뽐내며 메트로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협찬=베를린북 일산점 /손진영 기자 son@

##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13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19개 공소사실 중 ▲미르·K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등 1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범종 기자 joker@

## 롯데면세점, 주류·담배 남겨놓고 인천공항 철수

중사드보복 등 실적 악화에
공항공사와 ‘임대료’ 이견차
2년간 영업적자 2000억 달해
2020년까지 예상적자 1.4조

류·담배 사업은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한다. 이후 3월 중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 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부터 현재까지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1기 사업 기간(2001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중 4845억 원, 2기 사업 기간(2008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 2조 6억 원 등의 임대

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자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공항 사업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인천공항공사와 수차례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5년 3월 진행된 3기 사업 입찰에서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추어 임대료를 산정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드 보복은 물론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 시내면세점 성장 둔화 등 대내외적 악

<1터미널>

재 요인이 겹치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고 정상적인 영입이 진행되지 못했다.

실제 3기 사업 시작 이후 서울 시내면세점은 총 4곳이 추가됐고 을 연말에는 3곳의 추가 오픈이 예정되었다.

지난해 2월에는 특허수수료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며 비용 부담을 키웠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약 1조 4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5면에 계속>

/김유진 기자 ujin6326@



김민석, 아시아 최초 1500m 동메달

13일 오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경기에서 김민석이 힘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동계올림픽 빙속 남자 1500m에서 메달을 딴 것은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도 김민석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 50년 만에 ‘총수부재’... 롯데그룹 미래사업 ‘올스톱’

## 공정위 위생용품 입찰에 대리점과 담합 유한킴벌리 과징금 6억500만원

유한킴벌리가 정부의 위생용품 입찰에 대리점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모두 6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한킴벌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등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조달청,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135억원)에 함께 참여해 담합했다. 또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실제로 담합한 입찰 41건 중 26건이 낙찰됐으며, 이 중 4건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낙찰받았다.

한편 대리점이 낙찰받으면 제품은 유한킴벌리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의 영업활동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을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들이 지속해서 담합해 온 사건을 제재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 >> 1면 ‘GM 군산공장 폐쇄 쇼크...’서 계속

## 대규모 제품 투자로 일자리 유지 가능

제시된 안에는 한국에 대한 대규모 직접 제품 투자 포함됐고,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지엠의 설명이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지엠과 주요 이해관계자는 한국 내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으므로,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GM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GM은 약 4억7500만달러의 비현금 자산상각과 3억7500만달러 규모의 인건비 관련 현금 지출을 포함, 최대 8억5000만달러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국지엠은 설명했다. 지출은 대부분 2018년 2분기 말까지 ‘특별지출’로 회계장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한줄 News

**정책·사회**  
▲ 올해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검정교과서 가격**이 기존보다 권당 최대 30%까지 내린다. 새 교과서가 학습량 감소에 따라 평균 쪽수가 감소했고, 교과서 가격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적정 가격 분석을 통해 출판사와 협상한 결과다.

**산업**  
▲ **도미니크 시노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행사에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마켓**  
▲ 은행들이 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수신 고객 유치에 나섰다. 향후 기업대출 확대에 예대율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예수금을 충분히 쌓아줘야 하기 때문. 이에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특관을 실시해 예금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유통&라이프**  
▲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철수한다. 주류·담배 사업은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스노보드 금메달을 차지한 **클로이 김(Chloe Kim)**이 북미 지역 라네즈 모델로도 인기를 얻고 있어 눈길을 끈다.

## “경제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롯데 “일자리·M&A 위축 우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창립 50년만에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한 롯데그룹은 신 회장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등 ‘뉴롯데’가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이 잡혔다. 그동안 신 회장은 ‘롯데=일본기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경영 효율화와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독심 있게 추진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열었다.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11월 면세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논의해왔고,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신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인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유지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신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등기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경영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현재 중국 롯데마트 매각과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너가 부재인 상황에서는 기업의 M&A나 해외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신시장 개척 작업도 경고등이 켜졌다. 현재 롯데그룹은 해외에서 추진 중인 사업 규모만 100억달

러(약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약 40억달러(약 4조 3000억원) 규모의 나프타 분해 설비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베트남 호찌민 ‘에코 스마트 시티’ 사업 등에는 20억달러(약 2조15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인도와 미얀마 식품 부문 M&A에 2억5000만 달러(약 27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35억 달러(약 3조8000억원) 규모의 셰일 가스 기반의 에탄크래커 플랜트 건설을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롯데 지주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이)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사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대한스키협회장은 맡고 있다. 당장 차질이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 회장의 법정구속은 경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경제계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군산시 “공장 문 닫은 GM, 불매운동으로 대응”

## 최소 4만명 이상 GM과 연관 ‘사전대처 못했다’ 정부 비판도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전북 군산시는 13일 “근로자들과 30만 군산 시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만행”이라며 불매운동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군산 시민은 그동안 지엠 차 구매 운동을 열고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인) 뉴크루즈의 홍보에 앞장서는 등 한국지엠에 열정을 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군산시는 “지엠 군산공장은 1만 3000여명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의 생계가 달려있다”며 “지엠은 군산공장 직원고용 승계를 전제로 한 매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연합뉴스

각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지엠 군산공장까지 폐쇄된 것은 현 정부가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탓”이라며 “정부의 한국지엠에 대한 유상증자 등 자금 지원은 군산공장 가동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지엠 협력업체들도 졸도산 위기에 걱정이 크다.

당장 차량 생산 중단으로 일감을 얻지 못한 협력업체 폐업이 시작되면 대규모 실직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국GM 군산공장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1·2차 중소 협력업체는 135개로 추산된다. 근로자는 1만700여명으로 군산시 전체 고용비중의 약 22%

를 차지한다. 근로자에 가족 등을 합하면 최소 4만명 이상이 한국GM 협력업체와 연관돼 있다는 게 군산시 설명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차량 26만대를 생산한 2013년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했다.

공장 가동률이 20%에 불과했던 지난해는 3만대 수준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5조원을 상회했던 생산액은 1조원대로 쪼그라들었고 공장 직원도 절반으로 줄어 현재 2천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GM 계획대로 오는 5월부터 군산공장 차량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면, 고용승계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공장 직원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근로자도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 불법추심하면 담당 직원외 채권추심회사에도 과태료

### 금융위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불법 추심을 하면 채권추심 회사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의 목적이 있으면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대통령령으로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했다.

또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 시 채권추심인 외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 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권추심인의 불법 추심 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한다.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도 확대한다.

현재는 보험회사·채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면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토록 한다.

이에 따라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3년 누적손실 2조 육박... 한국GM의 '예고된 철수'

# '조선소 이어 후까지' 군산 지역경제 붕괴 위기감

군산지역 직접 고용만 10%달해 협력업체까지 절반이상과 연관돼 고용불안 파장 상상 초월할 듯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최악의 재무상황에 직면해 있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실은 결국 경쟁력 부재 때문이었다. 여기에 해외시장 철수가 직격탄을 날렸다.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고정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 ◆경쟁력 상실에 예고된 붕괴

한국지엠의 부실이 시작된 것은 2014년 GM이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2013년 63만대였던 수출물량이 2014년 48만대로 약 25% 가량 감소했다. 2013년 1010억원 흑자던 한국지엠은 2014년 3594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수출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2015년에는 러시아 철수비용 반영과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오찬 간담회에서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손실 폭이 9868억원으로 커졌고, 2016년에는 부분과업에 따른 손실과 인건비 추가지급 등으로 6315억원의 적자를 입었다.

2014~2016년 3년간 누적 당기손실은 1조9717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지난해에도 한국지엠이 큰 폭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1분기에만 2590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총 손실액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한국지엠이 국내 완성차 시장에

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 약화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지엠이 국내서 역량 자체가 13~15%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지만 판매할 만한 파급력있는 차량이 없다는 게 문제다"며 "국내서 물량이 부족해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쉐보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등 부품 대부분이 국산인데 군산 공장을 활용해 생산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지엠은 미국정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경제는 패니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 공장마저 폐쇄에 들어가자 군산시는 패니 상태에 빠졌다. 그간 군산산업단지 입주한 기업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이 차지한 경제 규모가 60~70%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연간 완성차 26만 대 생산 규모로 부품 조립(KD)방식까지 감안할 경우 연간 60만 대를 생산하는 시설 규모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2000여 명이지만 1·2차 135개 협력업체 직원만 1만700명 수준이다. 군산 산업단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1만94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접 고용만 10%,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한국지엠 공장과 연관돼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3월 문을 연 군산조선소는 한때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조선과 해운시장

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지난해 7월 문을 닫았다. 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폐업했고 사내의 생산직 근로자 5000여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군산지역 상권은 피폐해졌고 부동산 경기도 한파를 맞았다.

군산조선소는 전북 전체 제조업의 12.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고 생산 유발효과도 2조2000억원이나 됐다. 군산시로 좁혀보면 군산조선소를 비롯한 조선분야 노동자 수가 군산 전체 노동자의 24%에 달할 정도였다.

결국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이미 심각한 고용불안에 빠진 상태에서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군산공장 1·2차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머지않아 가시화하면 군산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만여명이 넘는 직원이 지역을 떠난다면 군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물론 원룸, 식당, 편의점, 유흥주점 등 지역 상권 역시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정부 "일방적 폐쇄에 유감... 경영정상화 위한 실사 진행할 것"

군산시, 불매 운동 등 강력 대처키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전북 군산시는 불매 운동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재무 실사를 받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GM 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 중단 및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한국지엠 관련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해

왔다"며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GM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GM 측과도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GM 측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

와 성실히 협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지엠의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해 GM 본사가 한국지엠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한국지엠이 GM 관계사에 지급한 이자는 4620억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5.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초저금리가 지속한 상황에서 한국지엠이 의도적으로 GM 본

사에 비싼 이자수익을 챙겨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판매액 대비 제조원가비율)이 2015년 97%, 2016년 94%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원가율 80%~85%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GM 본사가 부품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한국지엠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 최순실, 85세 돼야 수감 끝

### 안 전 수석 수첩 증거능력으로 인정 박 전 대통령 판결에도 영향력 줄 듯

최순실 씨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안중범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하고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핸드백 2개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수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일러줬다는 기업 총수와의 단독 면담 내용이 적혀있으므로,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정황증거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만큼,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은 박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지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다수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 정황은 그의 업무수첩에 나와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10월 27일	10월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10월 30일	10월 30일	최순실, 독일서 한국 귀국
11월 3일	11월 3일	검찰, 최순실 구속
12월 9일	12월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2월 21일	12월 21일	박영수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 5일	최순실, 안중범, 정호성 정식 공판 시작
2월 28일	2월 28일	특검, 최순실 ‘삼성뇌물’, ‘학사비리’ 등 추가 기소
3월 10일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3월 31일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5월 23일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정식 공판 시작
5월 31일	5월 31일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 병합 심리 결정
6월 23일	6월 23일	최순실 및 정유라·멘마커서 한국 강제송환
10월 13일	10월 13일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11월 14일	11월 14일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12월 6일	12월 6일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12월 14일	12월 14일	장시호 ‘삼성후원료’ 재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김중 징역 3년 선고
2018년	2월 13일	검찰·특검, 최순실 ‘재단 강제 모금,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안중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 구형,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2월 13일	2월 13일	법원,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 등 1심 선고 공판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개입한 미르·K재단 설립 주체를 청와대라고 판단했다. 두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금 지급을 최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결과로 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회원사들은 재단 설립을 서두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청

와대가 4차례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을 독려하고, 전경련에 재단 출연 기업 명단을 건넨 점이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기업들이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안 전 수석의 말에 하루이틀만에 출연을 결정하고, 설립 이후 운영 내용에 관심이 없던 점도 문제삼았다.

안중범 수첩에는 재단 설립과 운영, 관련 증거 인멸 정황이 담겨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2016년 10월 12일자 ‘VIP 면담, 각종 의혹 제기 문제, TV조선·한겨레·국감, 사업 관련 청와대 주도한 게 아니라 참여한 것으로’ ‘기업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청와대 요구 아니다. BH X’ 등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해당 기록이 재단 출연 강요 관련 증거인멸을 위한 청와대 회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수첩에 적힌 인물들이 K스포츠재단의 주요 업무를 봤다는 재단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전경련에 재단 설립을 독려하고, 최씨가 재단 설립 이후 ‘회장님’으로 불리며 사업 보고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부분 유죄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을 박 전 대통령에 부탁했다는 직권남용 강요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가 납품하는 흡착기는 현대차 구매팀이 신청 쓸 이유가 없는 부분임에도, 안 전 수석의 요구를 받은 현대차가 불이익을 우려해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납품을 부탁한 사정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해당 회사를 유독 챙긴 점을 볼 때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했을 것이라며 최씨와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와 현대차 광고 발주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강요한 것으로 봤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주사가 있던 현대차가 불이익을 우려해 발주에 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은 민간회사에 특정 광고 발주를 진행시킬 일반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모두 현대차 광고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상상적경합 관계가 있는 강요는 유죄여서 따로 무죄 선고하지는 않았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점에 대해서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업 계획안대로 스위스 회사 누슬리가 체육시설을 지을 경우, 최씨 회사인 더블루K가 공사금액 5%를 받게 돼 자동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인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최씨의 요청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므로 신 회장과 최씨,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반면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 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체제 전환 본격화

여야가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지도부를 개편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고, 야당은 민심잡기 행보의 보폭을 넓히는 동시에 ‘후보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박범계·박남춘·이재호·김우남 등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선거 출마자는 선거 120일전(13일)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집권 여당 2기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공석이 된 최고위원 4석 중 충청, 서울·제주권역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인천, 호남권역 최고위원은 권역별 협의가 이뤄진 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역 최고위원에는 충남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서울·제주권역에는 안규백 서울시장위원장이 맡아 각각 충청권과 서울·제주권의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안규백 서울시장위원장은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당내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민병두·전현희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몰린 서울시장 선거의 경선과 승리를 이뤄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설 명절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동시에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민심잡기 행보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에는 ‘보수 심장’ 대구를 찾았다.

앞서 홍 대표는 전국 지방선교회 신년회를 열면서 ‘보수의 바람’을 일으키고, 특히 영남권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까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민생 행보 일정에 집중하며, 지지율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후보 찾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지율을 회복하고,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후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뒷발’인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후보자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 자리도 여러 인사들에게 제안됐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 기자

## 文대통령 “설 명절 안전 꼼꼼하게 점검해달라”

### 취임 후 첫 화상 국무회의 주제 반부패 대책 강도 높은 시행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식품 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 다가온 만큼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정부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납품대금 결제 등 경영상 어려움과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올림픽 분위기로 자칫 소외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여성전문금융업법 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잇는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지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에 정권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연중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위로부터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받고는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과 나아가 기업까지 포함한다”면서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수입기관 합동회의의 김중로 의장(왼쪽 네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양당 수입기관 합동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창당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출범...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통합 전당대회적인 수입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했으며, 일산 킨텍스에서 출범대회를 열고 이를 추진해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초대 공동대표에는 박주선 국회의장과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가 선임됐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2선으로 물러났다.

소속 의원은 국민의당 21석, 바른정당 9석을 합쳐 30석으로 원내 제3당으로 출발하게 됐다.

유 대표는 수입기관 합동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

퇴하겠다. 그 이후 최단시간 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바란다”며 “당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대표직을 시사하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창당과 동시에 유 대표와 박 대표의 진두지휘 하에 지방선거 모드로 본격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지도체제 인선도 마무리 지었다.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동철 의원이,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 출신 지상욱 의원이 맡기로 했다.

최고위원에는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등 4명이 선임됐으며, 사무총장은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김성동 전 의원(바른정당)이 선출됐다.

정강·정책도 마련됐다. ‘합리적 중도’·‘합리적 진보’ 등 표현을 두고 합당 직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이들은 이념적 표현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채권시장 美 1994년 악몽 재현될까

# 금리인상이 되레 불확실성 해소... “충격 크지 않을 것”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 크지 않을 것  
긴축정책, 94년보다 2004년과 비슷

“현재의 금리 환경은 1994년과 닮았다. 저금리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국내 채권시장 한 CEO)

1994년 ‘채권시장 대학살’의 악몽이 재현될까.

13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채 10년 금리는 2.8%대에 올랐다. 지난해 고점인 2.6%를 단숨에 갈아치우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잡음(noise)도 커졌다. 12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45포인트(1.39%) 오른 2656.00에 마감했다. 하지만 1월 말 고점 대비 10%가까운 조정을 받았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도 59.29달러를 기록하면서 60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다.

덕분에 ‘1994년 채권시장 대학살(Bond Market Massacre)’의 아픈 추억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연준발 악몽이 재연될 것인가.

◆94년 악몽은 어떻게 탄생했나

미국 중앙은행(Fed)은 1994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동안 기준금리를 3% 포인트나 급격히 올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때문이다. 90년대 초반 S&L(저축대부조합) 파산으로 신용시장이 위



/오른예즈

축되고 경기침체가 온 이후 94년은 경기 바닥을 다지고 확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은 1994년부터 미국은 3%의 성장을 정상 국면에 진입 1995년부터 4%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레버리지(부동산)를 경계하며 연준에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을 주문한다. 문제는 금리인상 속도였다. 당시 금리인상은 3.0%에서 6.0%로 300bp(1bp=0.01%포인트)였다. 94년 2월 첫 인상을 시작해서 1995년 2월까지 1년 동안 3번의 50bp와 1번의 75bp 인상으로 충격은 메가톤 급이었다.

이에 1993년 말 6%를 밀돌던 미국 국채 30년물의 금리는 1994년 말 8% 위로 치솟았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1994년

10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채권시장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990년 시작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썼던 기준금리 3%(1992년 9월부터 1994년 2월까지)의 달콤함에 젖어 있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

S&P500은 94년 2월 482포인트를 기록한 후 4월 초 바닥인 439포인트까지 9% 조정을 받았다.

골드만삭스도 당시 큰 손실을 봤다. 당시까지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던 골드만삭스는 손실액이 늘어나자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끌어 들여야 했고 일부 파트너들은 회사를 떠나야 했다.

유동성을 등에 업고 파티(89년 이후)를 즐기던 멕시코·아르헨티나 증시는 출구전략 이후 1년 만에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했다. 멕시코의 페소화 외환위기는 ‘데

킬라 효과’로 남미 전역으로 확산됐다. 데킬라 효과는 돌고 돌아 2년 뒤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로 연결됐다.

◆트럼프 재정정책에 더 주목해야

시장에서는 2004년과 더 닮았다는 평가다. 앨런 그린스펀 당시 Fed 의장은 2004년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금리를 상당 기간 낮게 유지할 계획”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사전 신호를 내보냈다. Fed는 이후 2년간 1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25% 포인트 인상했다.

한국 등 전 세계의 주가는 금리 인상 전에는 위축됐지만 금리 인상 이후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했다. 미국·중국·유럽 등의 경제 체력이 튼튼했던 것도 금리 인상 걱정을 흡수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주가(하락) 환율(급등)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말한다. 올해 미국의 긴축정책이 94년보다는 2004년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동반 폭락한 지난 5일 공식 취임한 제롬 파월(65)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16대 의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강조했다.

그는 Fed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나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지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 금융 시스템은 10년여 전 금융 위기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더욱 탄력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금리(시장예상 최대 4차

레)를 인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메리츠증권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현재 국면에서 연준은 여전히 중요한 기관이지만 당시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연준의 선택권은 올해 3번이나 4번이나 금리인상 강도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유동성에 큰 충격을 주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트럼프 재정정책에 대한 걱정은 많다. 재정정책이 만든 경기개선과 채권공급 물량 부담이 현재 금리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원동력이라 것. 2월 들어 내년까지 증액된 예산은 미국 채권공급 부담을 자극하고 있는데다 성장률은 추가상향 조정 계기를 만들고 있다.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않더라도 부담스런 상황인 셈이다.

과도한 부채도 경계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비금융 부채는 지난 2016년 135조 달러(15경 3225조 원)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에 달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의 210%를 웃돈다.

IMF는 “낮은 차입 비용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낳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부채비율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적잖은 전문가들이 주식·채권 투자자에게 당분간 ‘방망이를 짧게 쥐라’(보수적 투자 태도를 가져라)고 권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친환경에너지 육성 ‘국장급 전담조직’ 신설

산업부 소속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재생에너지 3020계획 본격 추진  
관련 제도개선·중장기 R&D 지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이 생긴 것.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6년 7% 수준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산업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단 신설 등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산업정책단을 개편해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뒤 신재생에

너지 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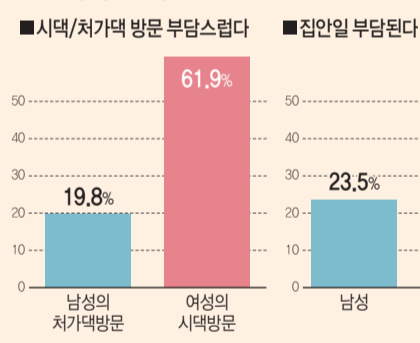
4개과 중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에너지산업업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ESS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맡는다. 또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제도 운영·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향후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중장기 R&D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과 “국민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효율화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설 연휴 부담 비율



자료/인크루트

## 전업주부 4명 중 1명 “설 연휴 없었으면” 명절 시댁 방문 스트레스, 친정보다 3배

인크루트-두잇서베이 명절 설문  
응답자 절반 “연휴 기대되지 않아”  
스트레스, 경제적부담·잔소리 순

설 연휴를 앞두고 시댁 방문 스트레스가 처가를 방문할 때보다 3배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명절 스트레스가 전업주부에겐 쏟아지는 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 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31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수는 ‘설 연휴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6%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기대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설 연휴를 기대하지 않는 응답자가 많은 계층은 취업생(67.2%)이 1위였고, 이어 전업주부(64.2%), 블루칼라 직장인(52.1%) 순으로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설 연휴 계획과도 관련이 있었다. 설 연휴 계획을 문자 ‘가족·친척 방문, 귀향’이 평균 38.7%의 응답률로 1위에 오른 데 비해, 전업주부의 가족

방문 계획은 무려 61.3%였다. 한편, 전체 설 계획 중 4위에 오른 ‘취미생활을 할 예정’(6.3%)에 대해 전업주부의 응답률은 0.9%에 그쳤다.

특히 전업주부들은 남편 쪽 부모인 시댁 방문시 느끼는 부담감이 61.9%로 친정 방문시 부담감 19.8% 대비 3배 이상 높아 전업주부의 설 연휴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예상케 했다.

전업주부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설 연휴 부담 사유 1위는 경제적 부담(35.7%)으로 나타났다. 이어 집안일 스트레스(31.7%), 가족간 갈등(잔소리 포함)(15.3%)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 연휴 부담 사유는 경제적 부담(30.1%), 가족간 갈등(20.9%), 집안일 스트레스(18.8%) 순으로, 전업주부의 집안일 스트레스가 평균(18.8%)보다 12.9%p 높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집안일 스트레스에 대해 남녀 교차 분석한 결과,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이 여자는 43.2%로 남자(23.5%)의 2배 가까이 됐다. 이때문에 전업주부의 25%는 ‘설 연휴가 없는 게 낫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hys@

## 시내면세점·온라인 강화... 해외시장 총력

▶▶ 1면 ‘롯데면세점 철수’서 계속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100여 명의 직원사원들을 본인 희망 근무지를 고려해 제2터미널과 서울 시내점 등으로 모두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롯데면세점은 3월 중 직원간담회를 실시, 5월 중에는 인력 배치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판촉사원들은 향후 차기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질 없는 인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철수를 통해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면세점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오픈한 다낭공항점이 영업 첫 해부터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베트남 2호점인 나트랑공항점이 오픈한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전경.

/김유진 기자

이 외에도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에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 오픈해 베트남 면세점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h6326@

# ‘스피드 신성’ 김민석이 해냈다… 사상 첫 1500m 동메달

18세 스케이터 생애 첫 올림픽무대 1분44초93… 은메달과 0.07초 차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괴물이 나왔다. 10대 스케이터인 김민석(18·평촌고) 선수가 남자 빙속 1500m에서 ‘깜짝 동메달’을 따냈다. 아시아 최조다.

김민석은 13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강릉 오벌)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결선에서 1분44초93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키엘트나위스(네덜란드), 파트릭 루스트(네덜란드)에 이어 3위다.

이날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선 김민석은 총 35명이 출전한 남자 1500m 15조에서 레이스를 펼쳤다.

인코스에 뒀던 김민석은 300m 구간을 중위권인 23.94초에 통과한 후 700m까지 49초64를 기록하며 5위로 달렸다. 이어 1100m까지 1분16초45를 찍으며 2위까지 올라섰고, 막판에 스피트를 울리며 중간 3위까지 올라섰다. 개인 최고 기록(1분43초49)보다 0.44초 늦었으나 성공적인 데뷔전이다.

김민석은 2016 릴레함메르 유스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분51초35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깜짝 금메달을 따내며 2관

왕에 오른 바 있다.

여기에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내며 스타 탄생을 알렸다. 동계올림픽 빙속 남자 1500m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도 김민석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괄윤기(고양시청)-김도겸(스포츠포토)-임효준(한국체대)-황대현(부흥고)이 호흡을 맞춘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남자 계주 5000m 예선 2조 경기에서 6분34초510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13일 오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 출전한 김민석이 동메달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짜릿·몽클… 각본없는 ‘평창드라마’ 전 세계인 이목 집중! 놓치지 마세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기는 보는 것만으로 가슴을 짜릿하게 만들곤 한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가장 짜릿한 말은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닐까.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펼쳐진 ‘평창 드라마’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韓 여자 모굴 사상 첫 결선 진출 서정화** 서정화는 경기도 힘든 상태에서 경기장에 나서 한국 최초의 기록을 쓴 주역이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고작 이틀 앞두고 넘어진 서정화는 오른쪽 골반을 다친 채로 지난 9일 모굴 1차 예선에 나섰다. 그러나 점프 직전 넘어지며 30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1일 오후 강원 평창군 휘닉스 파크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굴 예선에서 서정화가 멋진 포즈로 점프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기할 법도 했다. 그러나 서정화는 ‘진통제 투혼’을 감행하며 2차 예선에 나섰고, 결국 20명 중 6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한국 여자 모굴 사상 최조다.

아쉽게도 지난 11일 열린 1차 결선에서는 72.31점으로 14위에 그쳤지만 12위 선수와 0.92점 차이에 불과했을 정도로 호성적을 기록, 유종의 미를 거뒀다.

‘무릎 꿇은 서정화’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무릎을 꿇은 채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모습에 여러 추축이 쏟아지기도. 이에 서정화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며 부상 투혼을 짐작케 했다.

◆**마지막 올림픽서 생애 첫 금메달 수확한 패트릭 쉐인**

캐나다의 피겨스케이팅 스타로 불리는 패트릭 쉐인(27)은 유독 올림픽 금메달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그런 쉐인이 마지막 올림픽에서 생애 첫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피겨 단체전에서다.

캐나다는 지난 12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단체전에서 팀포인트 73점을 획득해 정상에 올랐다.

캐나다의 금메달 획득에는 쉐인의 공이 컸다. 단체전 남자 싱글 쇼트와 프리에서 캐나다의 대표로 나선 쉐인이 쇼트 3위에 이어 프리에서는 1위를 차지한 것. 쉐인은 두 차례 퀘드러플(4회전) 점프에 시즌 최고점인 179.75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시즌

을 끝내고 은퇴할 것이라고 예고한 쉐인은 오는 16일 남자 싱글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과 17일 프리 스케이팅에서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꿀찌’에서 1등으로 시몬 헤그스타드 크뤼게르**

꿀찌에서 1등으로 우뚝 선 선수도 있다. 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한 노르웨이의 시몬 헤그스타드 크뤼게르다. 크뤼게르는 지난 11일 남자 크로스컨트리 30km 스키애슬론 경기에서 1시간 16분 20초 0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크뤼게르의 금메달 획득과정은 험난했다. 경기 초반 선수들과 영커 넘어지면서 첫 기록 계속 지점인 0.88km에서 67명 가운데 꼴찌를 한 것. 선두로 달리던 선수와는 무려 18초 7의 차이였다.

크뤼게르가 반환점을 돌았을 때 순위는 14위였다. 1위와는 15초 2까지 격차를 좁혔다. 그때부터 그는 뒷심을 발휘한 그는 선두권에 진입해 24.75km 지점부터 1위로 치고 나섰다.

/구세윤 인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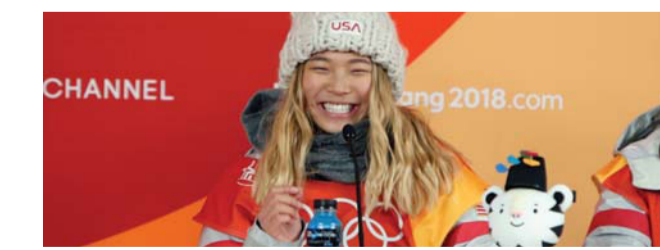
### 수호랑, '88올림픽 '호돌이' 아들?

호랑과 반다비의 활약상은 온라인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이 가운데 수호랑의 출생의 비밀이 예상 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수호랑이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다’에 가깝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과 연계한 디자인이라고 밝혔고, 호돌이의 아버지 김현 작가도 인터뷰를 통해 “수호랑은 호돌이의 아들인 셈”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수호랑과 반다비는 탄생부터 호돌이, 곰두리와 연결돼 있었으니 자손이라 봐도 무방하다. 비록 호돌이는 갈색, 수호랑은 흰색이지만 백호가 ‘신성한 동물’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의문은 쉽게 풀린다.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백호를 마스코트로 내세워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그렇다면 왜 호랑이와 곰일까. 이들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문화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건국신화에도 등장했을 정도다. 그만큼 한 민족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동물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올림픽 마스코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귀속돼 있다. 그러나 마스코트를 만든 이들은 미국의 흰머리독수리, 러시아의 곰, 중국의 팬더처럼 호랑이를 한국의 국가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데다, 조직위도 호돌이와 수호랑의 스토리텔링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수호랑·반다비 스토리텔링**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는 수호랑과 반다비다. 수호랑은 백호, 반다비는 반달가슴곰이다. 올림픽 열기가 뜨거워 질 수록 마스코트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진다. 수호랑과 반다비는 탄생부터 호돌이, 곰두리와 연결돼 있었으니 자손이라 봐도 무방하다. 비록 호돌이는 갈색, 수호랑은 흰색이지만 백호가 ‘신성한 동물’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의문은 쉽게 풀린다.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백호를 마스코트로 내세워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그렇다면 왜 호랑이와 곰일까. 이들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문화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건국신화에도 등장했을 정도다. 그만큼 한 민족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동물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올림픽 마스코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귀속돼 있다. 그러나 마스코트를 만든 이들은 미국의 흰머리독수리, 러시아의 곰, 중국의 팬더처럼 호랑이를 한국의 국가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데다, 조직위도 호돌이와 수호랑의 스토리텔링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스포츠 한줄 News



- ▲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사진)이 스노보더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김은 2000년 4월 23일생으로 17세 296일에 올림픽 정상에 올랐다.
- ▲ 미국 출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IOC는 “관련해서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 ▲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아나스타샤 브리즈갈로바-알렉산드르 크루셀니츠키 부부가 노르웨이를 꺾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 ▲ 평창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도핑에 적발된 일본 국가대표 사이토 게이가 “결백하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선수단도 “모든 테스트나 방법 동원해 사이토의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순신 장군 동상 그림에 이어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림도 선수들의 장비에서 지우게 할 참이다.
- ▲ KBO가 상벌위원회, 규칙위원회, 육성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우리나라 첫 은행  
since 1899

The Banker誌 (더 뱅커지)  
'2017년 아시아 최우수 은행' 선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함께해서 더 좋은 날, 설날

우리나라  우리은행

# 풀체인지 '올 뉴 K3'... 새 심장으로 경차급 연비 실현

기아차 첫 '스마트스트림 G1.6' 적용  
첨단 안전사양 적용해 안전성 높여

기아자동차가 L당 15km를 넘는 경차급 연비를 인증받은 준중형 세단 '올 뉴 K3'로 시장 평정에 나섰다.

기아자동차는 오는 27일 '올 뉴 K3' 출시를 앞두고 13일 서울 광장동 위커피호텔에서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뉴 K3의 보도발표회를 가지고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K3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인 것은 2012년 1세대 출시 이후 처음이다.

박한우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준중형 세단 이상의 상품성을 지닌 올 뉴 K3가 고객가치증대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리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올 뉴 K3의 연간 판매목표를 국내 5만대로 잡았다. 특히 이성적 소비층의 메인인 경제성, 공간성, 안전성을 중시하는 3040세대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올 뉴 K3는 15.2km/L 경차급 연비와 다이내믹한 외관, 넓고 편안한 실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편의사양 적용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올 뉴 K3의 트림을 ▲트렌



박한우 기아차 사장(왼쪽부터), 권혁호 기아차 국내영업본부 부사장이 '올 뉴 K3' 탄생 소식을 알리고 있다.

/기아자동차

디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4가지로 세분화한다. 또 기본 트림(트렌디) 가격을 1590만~1610만원 사이에서 책정해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뉴 K3는 기아차 최초로 '스마트스트림 G1.6'을 적용해 경차급 연비를 구현했다. 이는 기존 K3 모델 대비 10% 이상

개선된 수치다. 스마트스트림 G1.6 엔진은 듀얼 인젝터를 통해 연료 분사 시기와 분사 비율을 최적화해 다양한 분사 전략을 구현하는 듀얼 포트 연료분사 시스템(DPFI)으로 기존 싱글 인젝터 대비 연소 효율을 개선했다.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는 변속을 수행하는 부품인 벨트에 고효율 금속 체

인 벨트를 적용했다. 전달 효율이 우수한 체인 형태로 연비가 개선되고, 금속 재질로 벨트의 마모 내구성이 강화됐다. 유압 조절을 위한 유량 공급장치에는 구동 토크를 감소시키는 베인 타입 펌프를 적용해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스마트스트림이 적용된 올 뉴 K3는 최고출력 123마력(PS), 최대토크 15.7kgf·m의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올 뉴 K3는 첨단 안전 사양을 적용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량감지)를 기본 장착한 것을 비롯해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이탈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을 적용했다. 초고장력 강판을 확대 적용하고, 7개의 에어백 장착으로 강화된 신차 안전도 평가(KNCAP) 1등급을 목표로 해 안전성을 끌어올렸다.

또 'AI 기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인 '카카오 I(아이)' 적용을 통해 운전 편의성을 강화했다. 카카오 I(아이)는 5년간 무료 이용 가능한 UVO 내비게이션에 적용된다.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리틀 스팅어'라는 호평을 받았을 정도로 차체 크기가 기존 모델보다 커진 전장 4640mm, 전폭 1800mm, 전고 1440mm, 축거(휠베이스) 2700mm다.

올 뉴 K3는 ▲런웨이 레드 ▲호라이즌 블루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스틸 그레이 등 신규 컬러 4종을 포함해 ▲스노우 화이트 펄 ▲살키 실버 ▲그라비티 블루 ▲오로라 블랙 펄 등 총 8종의 외장 컬러와 ▲블랙 ▲브라운 인테리어 등 2종의 내장 컬러를 운영한다.

이날 기아차는 전국 기아자동차 영업점을 통해 올 뉴 K3의 사전계약에 들어갔으며, 27일 공식 출시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새 검정교과서, 최대 30% 가격 인하

신뢰도 확보 위해 출판사와 협상  
평균 쪽수 감소... 원가 인하 요인

올해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검정교과서 가격이 기존보다 권당 최대 30%까지 내린다. 새 교과서가 학습량 감소에 따라 평균 쪽수가 감소했고, 교과서 가격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적정 가격 분석을 통해 출판사와 협상한 결과다.

교육부는 13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고 2018학년도 검정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교과서와 교과목, 수업 방식의 기준이 되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새 교과서를 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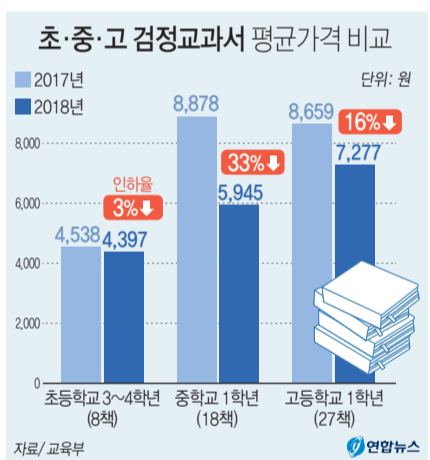
교육부는 지난해 검정도서 심사를 마친 58책 413종의 교과용도서 가격에 대해 천재교육, NE능률, 대교 등 검정출판사와 4차례 협상을 거쳐 18개 검정출판사 중 17곳이 교육부 권고가격에 합의해 인하겠다고 밝혔다. 가격합의에 이르지 못한 출판사 1곳과는 2월 말까지 후속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검정교과서 신간본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초등학교 3~4학년은 97%(4538원), 중학교 1학년은 67%(5945원), 고등학교 1학년은 84%(7277원) 수준으로 각각 권당 평균 141원, 2933원, 1382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검정교과서 가격인하는 과거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자율화와 가격 폭등, 정부의 가격조정 명령과 소송 제기 등 갈등과 불신을 빚은 것과 대비된다.

교육부는 이번엔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에 대해 회계법인의 조사를 근거로 적정성을 분석해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해 상호 수용 가능한 가격수준을 찾았다.

가격 인하 요인은 우선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초에 따라 신간본 교과서는 평균 쪽수가 20.97% 감소하는 등 총 원가 인하 요인이 컸다. 또 7개 시도교육



올해 첫 도입된 통합사회, 통합과학 새 검정교과서. /교육부

청이 담당하는 인정교과서에서 교육부가 가격을 정하는 검정교과서로 전환된 도서가 28책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출판사의 공정이윤을 보장하고 교과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검정수수료와 수정보완 비용을 총원가에 반영하는 등 출판사 가격인상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초등 3~4학년 지도서는 전년보다 1만7876원 인상된 평균 5만391원, 중1 지도서는 1만9634원 인하된 평균 5만8412원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준 출판사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새 교과서 가격은 오는 20일 관보에 게재된다. /한용수 기자 hys@

## LG유플러스도 '5G 상용화' 박차

5G 네트워크 장비 제안서 발송  
이통3사, 협력사 선정 작업 착수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KT에 이어 5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LG유플러스는 5G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RFP를 발송한 SK텔레콤과 KT를 포함해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5G 협력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용산 사옥에서 노키아, 삼성전자, 에릭슨 LG, 화웨이 등 국내외 장비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회사의 5G 상용화 전략과 준비 현황, 사업 일정 등을 소개했다.

또 제안요청서에 담긴 NSA 표준을 기반으로 한 장비의 세부 기술과 사업 요구사항 등을 설명했다. 제안요청서에는 NSA·SA 동시지원 요구도 포함됐다. NSA는 기존 LTE 망과 5G 망을 함께 사용해 데이터를 전송하



5G 네트워크 장비 도입 설명회에 참가한 국내·외 글로벌 장비회사 관계자들이 LG유플러스 '모두의 5G 체험관'에서 5G 생중계를 체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는 기술이고, SA는 5G만 이용한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장비제조사들의 제안서를 접수 받아 제안서 평가와 기능 시험, 개발시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협력사를 선정, 5G 상용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주식 LG유플러스 5G추진담당(부사장)은 "지금까지 LG유플러스는 5G 핵심기술 상용화와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과 조기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 가맹점과 수익 나누는 '착한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중기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정부가 가맹점과 수익 나누는 '착한 프랜차이즈'를 올해 집중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을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와 성장

형 프랜차이즈로 나눠 지원한다.

이익공유형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주식을 배당, 지분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성공시 성과 공유 ▲가맹비를 정액제가 아닌 매출액·영업이익 등에 따라 구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차등 적용 ▲가맹점 매출이 일정기준 이하일 때 정해진 기간과 금액 범위에서 본사가 손실 보전 등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한 프랜차이즈가 대상이다.

지원은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 환경 구축 개발비 등으로 자부담 10%를 포함한다. 시스템구축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다.

또 성장형 프랜차이즈는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본사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해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자부담금은 지원 분야에 따라 20~30%로 시스템구축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우수사례 발굴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상생발전 참여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상생발전형 프랜차이즈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포스코-GE, 제철분야 '스마트공장 플랫폼' 공동개발

기술·국내의 협력 강화 MOU 체결  
스마트 솔루션 사업화 본격 추진  
연말까지 모듈 개발·적용성 검증

포스코와 제너럴일렉트릭(GE)이 제철 설비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

포스코는 1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GE와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위한 기술협력 및 국내외 비즈니스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제철설비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형 플랫폼인 '포스프레임 플러스(PosFrame+)'를 개발·사업화하게 된다.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권오준 회장, 포스코 ICT 최두환 사장, BHGE 마티아스 하일만 CDO, 바우터 반 월시 GE APAC CEO(왼쪽부터)가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위한 협력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이 플랫폼은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인 '포스프레임'과 GE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인 'APM(설비자산 성과관

리 솔루션)'이 결합된 모델이다. 철강산업 전용인 포스프레임은 철강제품 생산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모

으고 분석해 시각화할 수 있다. APM은 제조설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등 최적의 설비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양사는 우선 포항제철소 5호기의 발전 설비 등에 APM을 적용, 포스프레임과의 호환성 테스트를 시작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모듈 개발 및 적용성 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프레임 플러스가 개발되면 설비 운영효율 향상과 안전 사고 예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앞으로 포스프레임 플러스를 더욱 발전시켜 제철설비는 물론 관련 후방산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 사례, 주요 기술 등도 공유해 포스프레임 플

러스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협력모델도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권오준 회장은 "이번 협약은 스마트 솔루션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HGE의 마티아스 하일만 최고디지털 책임자(CDO)는 "양사는 철강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협약식에 앞서 GE측 관계자들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과 쇼트트랙 경기에 초청해 함께 응원하며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의 평화축제를 함께 즐기고 관람해 양사간의 파트너십을 굳혔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와 KT스카이라이프 직원이 지난 12일 서울 목동 KT스카이라이프 방송센터에서 올해 출시 예정인 2018년형 삼성 QLED TV(85형)를 이용해 8K UHD 전국 단위 방송 시연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 삼성전자-KT스카이라이프

### QLED TV로 초고화질 방송 시연 성공

삼성전자와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2일 서울 목동 KT스카이라이프 방송센터에서 올해 출시될 2018년형 삼성 QLED TV를 이용해 전국 단위의 8K(7680×4320 해상도) UHD(초고화질) 방송을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연 방송은 KT스카이라이프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천리안 위성을 통해 전송된 8K UHD 영상을 안테나로 수신해 QLED TV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연에 2018년형 QLED TV 85인치 모델을 지원해 울릉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8K 영상으로 구현

했다. 이로써 초고화질 방송 시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8K는 4K(3840×2160) UHD보다 4배 이상 선명한 차세대 초고화질 방송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시연방송을 하고 있다.

이번 시연은 천리안 위성의 Ka대역(20~30GHz)에서 고효율 영상 압축방식인 H.265 표준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위성 전송 역시 기존보다 전송 효율이 대폭 개선된 DVB-S2x 방식이 적용돼 100Mbps급 8K UHD 위성 방송 송수신이 가능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 달라진 스마트폰 전략... 신형 무기는 'AI'

## G6·V30 버전 업그레이드 공개 카메라 기능 등에 AI 기능 접목

LG전자가 올해 스마트폰 전략을 전환했다. 시즌별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던 것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G6'나 'V30'의 버전 업그레이드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져 시장은 포화되고, 제품의 품질력 향상과 내구성 개선 등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MC사업부가 새롭게 꺼내든 카드다.

그러나 단순히 카메라 성능이나 메모리 용량에 대한 기능 업그레이드를 넘어선다. 한층 강화된 인공지능(AI)로 최적의 촬영모드를 추천하거나 상품정보 검색, 쇼핑까지 가능하다.

LG전자는 '2018년형 LG V30'에 1년여 간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분석해 누구나 편리하게 쓰고 싶어 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접목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인 적용 분야는 카메라다. 듀얼 카메라, 저역곡 광각, 글래스 소재의 크리스탈 클리어 렌즈 등에 더해 사물을 비추면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의 촬영 모드를 추천해주는 AI 기능을 접목했다.

이 기능은 피사체를 분석해 인물, 음식, 애완동물, 풍경, 도시, 꽃, 일출, 일몰 등 8개 모드 중 하나를 골라준다. 각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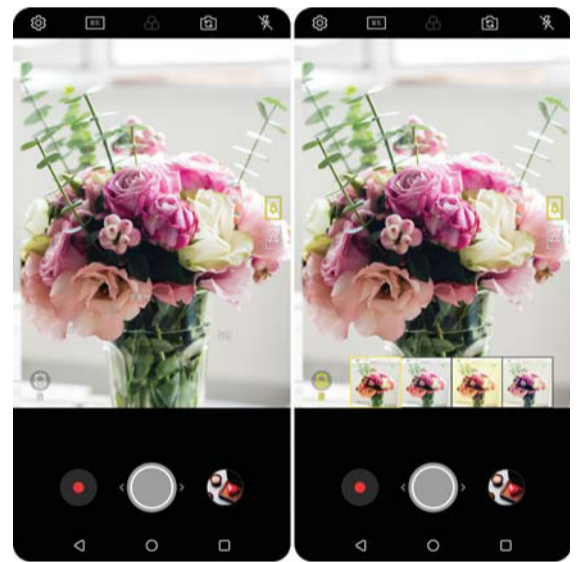
는 화각·색감·반사광·역광·채도 등을 고려해 찍고 싶은 대상의 특징을 살리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이미지 분석 전문 업체와 손잡고 사진 데이터를 1억장 이상 분석해 1000여 개의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은 카메라를 비추는 즉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해 촬영 모드를 추천해준다.

또한 카메라로 촬영하면 피사체의 정보 검색, QR 코드 분석, 관련 제품 쇼핑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손목시계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은 물론 비슷한 제품들까지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다.

음성에도 AI 기능을 강화했다.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LG만의 편의 기능을 음성으로 명령하면 실행해주는 음성 명령어를 23개에서 32개로 늘렸다. 사용자는 손대지 않고도 말로 앱을 실행시켜 주거나 설정까지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LG전자의 카메라 기능을 음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광각 카메라, 시네 비디오 등 LG V30에서 실행했던 기능들은 물론 최적의 촬영모드 추천,



사물 인식, 저조도 촬영 등 새롭게 탑재되거나 업그레이드된 기능들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는 AI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신제품에만 AI 기능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품까지 확장한다. 제품의 하드웨어 성능 및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AI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2018년형 LG V30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 '김윤' 박사, SKT AI리서치센터장 취임

(애플 '시리' 개발 담당)

애플의 음성인식 비서 '시리(Siri)'의 개발과 고도화를 담당했던 김윤 박사(사진)가 SK텔레콤이 지난해 신설한 AI리서치센터장에 취임했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조직인 SK텔레콤의 AI리서치센터는 인공지능(AI)의 요소기술 개발과 사업 가능성 기술 검토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미래 성장을 위한 AI 등 성장 R&D 영역에서 핵심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김윤 선임 센터장은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후 2000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와 함께 미국 3대 싱크탱크로 꼽히는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스탠퍼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박사 취득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네오스피치를 창업하고 최고 기술책임자(CTO)를 맡았으며, 음성인식 스타트업인 노바리스의 CEO(최고경영자)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애플이 노바리스를 인수한 이후 지난날까지 애플 시리의 AI 기술 연구 개발과 고도화를 이끌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의 AI 인재 육성과 AI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입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삼성전자 '올림픽 쇼케이스'

삼성전자가 지난 9일 개관한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가 각국 선수단과 관람객들에 인기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중인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선수 브라이언 영, 마이크 테스트워드(한국명 강태산), 마이클 슈워트, 맷 달턴(한국명 한라성), 브락 라던스키(한국명 라동수)가 강릉 올림픽파크에 위치한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를 방문했다. 이들은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에서 스키레슬, 알파인 스키, 스노우보드, 봅슬레이 등 다양한 동계 올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 정은미 기자·사진 삼성전자

# 르노삼성 “해치백·LCV 전기차 ‘투트랙’으로 27만대 판매”

(경상용벤)



## 시노라 사장 첫 기자간담회

내수시장 활성화 위해 신차 출시  
프리미엄+가성비로 판매 확대  
상반기에 해치백 ‘클리오’ 선보

도미니크 시노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행사에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 침체된 내수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신차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푸르덴셜타워 푸르덴셜 홀에서 ‘2018 신년 CEO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7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시노라 르노삼성 사장은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만 10만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며 내수시장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르노삼성은 글로벌 경제 악화로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이 하락



도미니크 시노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르노삼성

하는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내수 10만537대, 수출 17만6271대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완성차 중 유일하게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

이에 시노라 사장은 올해 내수 10만대, 수출 17만대 등 총 27만대로 판매 목표를 잡았다. 경쟁 업체의 신차 출시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지 않겠다는 우려에 대해서 시노라 사장은 “좋은 차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

신감을 내비쳤다. 르노삼성이 올해 출시하는 해치백 ‘클리오’는 유럽 동급 세그먼트 중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다.

유럽에서 ‘소형차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는 클리오는 1990년 출시된 소형 해치백이다. 전 세계에서 1300만대 넘게 판매되며 경쟁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국내 출시를 앞둔 모델은 부분변경(페이스 리프트)을 거친 4세대로 지난해 3월 말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되며 주목받았다.

또 모델 노후화로 단종 우려가 제기된 SM5와 SM7 등에 대해 “판매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단종 계획은 없다”며 “QM6·SM6·QM3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우고 SM3·SM5·SM7은 가성비를 앞세워 ‘투트랙’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판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노라 사장은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르노삼성은 고객 인도 이후의 차량에 대해서도 품질유지와 고객안전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과 함께 고객 접점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시노라 사장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객들을 생각할 때”라며 “AS 개선을 통해 고객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르노삼성은 편리한 AS를 위해 예약 접수를 받는 시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시노라 사장은 이날 발표에서 ‘고객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고객의 소리를 경청한다는 것은 고객들을 놀라게 한

다는 것”이라며 “트렌드를 정리해 나가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고객들을 놀라게 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이를 위해 시노라 사장은 올해 경상용벤(LCV)을 도입해 새로운 세그먼트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시노라 사장은 “전기상용벤에 있어서 르노가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르노삼성은 올해 상반기 소형 해치백 ‘클리오’를, 하반기엔 LCV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미국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한국 등에서 자율주행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르노삼성은 프랑스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단군 프로젝트’를 통해 저속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시노라 사장은 “첫 알고리즘을 소형 전기차에 도입해 국내 및 해외에서 자율주행 시험 운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노라 사장은 “르노삼성은 1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올 한해도 고객, 직원,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김현정 인턴기자 ysw@metroseoul.co.kr

## ‘T맵’, 인공지능으로 앞차 급제동 알려준다

### SK텔레콤 사고위험까지 경고

SK텔레콤은 전방 사고 징후를 뒤따르는 차량에게 일제히 경고하는 기술인 ‘T맵 V2X(차량과 사물간 통신)’를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에서 13일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T맵 V2X는 앞서가는 T맵 이용 차량이 급제동하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대 1km 내 뒤따르는 차량의 T맵 이용 화면에 일제히 경고 문구를 띄워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기술이다. 뒤따르는 운전자는 전방 상황이 시야에 보이지 않더라도 T맵 경고에 따라 서서히 속력을 줄여 추돌을 방지할 수 있다.

T맵 V2X의 인공지능은 스마트폰 모션 센서, GPS 정보, 빅데이터 등으로 차량 급제동 여부를 판단한다. SK텔레콤 커넥티드카 플랫폼 스마트 플릿은 급제동 신호를 포착하면 뒤따르는 차량을 추적해 경고를 전달한다. 이 과정은 4G-LTE망을 통해 이뤄진다.

경고를 보내는 범위도 도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도로나 평균 속력이 낮은 구간에서는 100m 내외 후방 차량에,



모델이 SK텔레콤의 ‘T맵 V2X’ 상용화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1km 후방 차량에 위험을 경고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도로별 평균 속도, 경사, 회전 각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도로를 580만개 구역으로 나눴다. 향후 시간 특성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심야에는 과속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고를 전달하는 범위를 길게 산정한다.

T맵 V2X는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별도 장비 구입이나 월 이용료가 없다.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윈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T맵 최신 버전만 다운로드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LG전자 노조, 브라질에 ‘노경 문화’ 전수

(勞經)

### 브라질 금속 노조 한국으로 초청 제조혁신 성공사례·USR 등 소개

LG전자 노동조합이 브라질 타우바테 지역노조를 한국으로 초청해 선진 노경(勞經)문화를 소개했다.

13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 노동조합이 브라질 타우바테 지역 금속노조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한국으로 초청, 제조혁신 성공사례와 함께 노조의 사회적책임(USR)을 비롯한 노경 문화를 전했다.

브라질은 산업별 지역노조가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과의 교섭권을 갖기 때문에 타우바테에서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LG전자도 이 지역 금속노조와 교섭한다.

타우바테 금속노조 방문단은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시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공장 준비 현황과 제조혁신 성공사례 등을 소개받았다.

LG전자 노조는 2010년 1월 국내 기



LG전자 배상호 노조위원장(가운데)이 타우바테 지역 금속노조 위원장 ‘클라우디오 바티스타 실바’(왼쪽에서 네번째)와 함께 타우바테 지역 금속노조를 상징하는 휘장을 들고 있다. /LG전자

업 최초로 USR 현장을 선포,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 신장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골자다.

LG전자 노조는 노동·인권·소비자·환경 등 7개 영역에 걸쳐 소비자를 위한 품질강화, 해외법인과 연계한 빈곤 국가 구호,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

로 한 생산성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한편 LG전자는 ‘노사’(勞使)라는 말이 내포한 상호대립적이고 수직적인 의미를 대신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勞)와 경(經)이 제 역할을 다해 함께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노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티브로드 설 연휴 맞아 ‘지역채널 특집 편성’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방송사인 티브로드는 설 연휴 동안 지역채널 특집편성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설 연휴 기간 TV시청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각 방송국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방송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청자는 댓글 등으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는 형태의 양방향 소통을 한다.

특히 연휴기간 중 귀성길과 귀경길 교통상황이나 주요관광지 정보,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 등 설 명절과 관련된 정보를 서울과 인천, 한빛, 수원, 기남, 중부, 전주, 대구, 부산권역의 티브로드채널1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통일부와의 프로그

램 교환으로 편성하는 ‘청동야 진정해’ 2부작은 전국 공통으로, 1부는 2월 15일 22시, 2부는 2월 16일 22시에 방송한다. ‘청동야 진정해’는 통일된 미래 한국을 배경으로 멀리 함경도에서 온 청동야(홍경인)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웹툰을 웹드라마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인천방송에서는 연휴 첫날인 15일에 ‘인천동네방네 스페셜’과 ‘설특집 우리동네 알리미’에서 설연휴 가볼만한 곳과 우리동네 맛집 5곳을 선정해서 알려준다. 같은 날 인천지역의 오래된 전통시장에 젊은 창업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변화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담은 ‘인천의 전통시장 변화가 시작되다’도 방송한다. /김나인 기자



‘라라’ 출연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브로드밴드

## SKB ‘옥수수’서 韓-越 영화 ‘라라’ 첫 공개

한국-베트남 합작 모바일무비 ‘라라(LALA): Live Again, Love Again’가 SK브로드밴드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옥수수(oksusu)’를 통해 13일 오전 10시 최초 공개됐다.

라라는 극장 상영작과 달리 97분짜리

영화를 여러 편으로 나눠 시리즈로 제공하는 ‘모바일무비’ 형태다. 모바일무비는 기존 드라마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적인 장르를 선보이며, 퀄리티 높은 영상미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옥수수는 모바일무비의 기획제작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IPTV 주문형비디오(VOD) 시장까지 확대 진출할 것이라 밝혔다.

판타지 로맨스 라라는 작곡가 지필(산이)이 헤어진 옛 여자친구 윤희(정재연)의 사망 소식을 듣고 찾아간 베트남에서 작곡가를 꿈꾸는 미(치푸)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현재와 과거, 현실과 꿈을 넘나들며 담았다. 걸그룹 ‘아이오아이’, ‘다이아’로 잘 알려진 가수 정재연의 스크린 데뷔작이자 베트남 현지에서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작품이다.

SK브로드밴드는 라라의 공동제작사로 참여해 옥수수를 통한 콘텐츠 독점 공개뿐 아니라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10여개국에 콘텐츠 판권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영화 라라는 22일에 극장 개봉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옥수수에서만 13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공개됐다. /김나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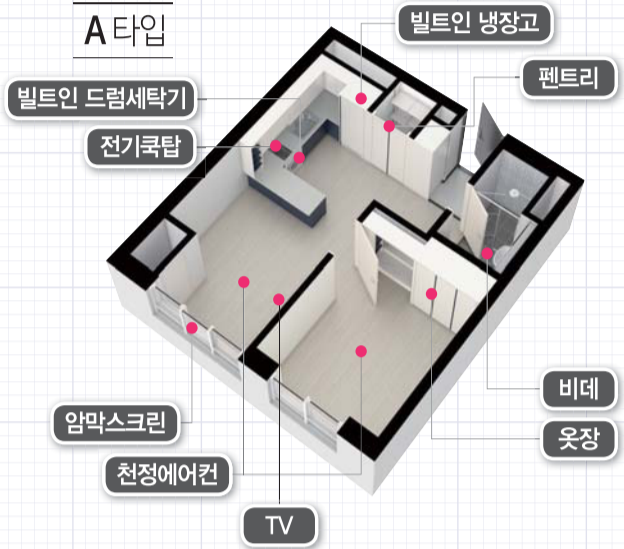




# 마음 같아선 한 10개쯤 사두고 싶은 아파트형 오피스텔!!



## 살고 싶은 제주 연동



\* 상기 아이스는 A 타입 기준입니다. 그외 타입 및 기타사항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는 임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세받고 싶은 제주 연동

한리일보

2017년 11월 17일

**제주 소형아파트가격 폭등...  
분양가 1년새 31.5% ↑**

60㎡ 이하 ㎡당 평균분양가 538만원...서울 다음 비싸  
61~85㎡ 평균분양가 315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높아

임대관리 걱정없이 임대수익지금 OK

**KT (주) 라이프테크**  
[TECH] (임대관리 위탁 계약 체결시)

\* 한국자산신탁은 임대수익 지급과는 무관함

주요실적

- 16.10 제주아빌로스 [임대관리]
- 17.06 서울자양동 한강파크오피스텔 [임대관리]
- 17.10 역삼동 멜로즈프라자 [임대관리]
- 17.04 부산호텔 더마크해운대 [위탁운영]
- 18.01 반포동 더 라움 [임대관리]

www.jejutrueel.com

## 제주 연동 일성 트루엘 아파트형 오피스텔

일성건설(주)



서울모델하우스 방문시  
**부동산 투자가이드 도서 증정!**  
(유엔알건설링 박상언 대표 저음)



다 시 없 을  
투 자 기 회  
매 력 적 인  
특 별 헤 택!

01 1가구 2주택  
해당 없음

02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03 초기 투자금  
2,000만원대  
(실제 투자금 기준,  
중도금 60% 대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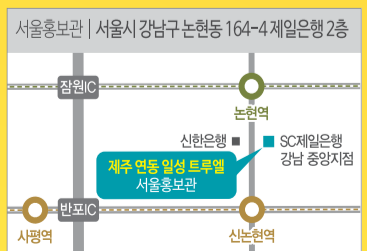
04 분양권 전매  
제한 無

05 제주도 차량등록제  
전격시행  
1실 1주차  
확보

제주의 중심입지 제주공항과 관공서, 병원, 대학교 및 기업 등 행정·업무중심지  
완벽한 생활환경 이마트, 롯데마트, 바오젠거리, 롯데시네마 등 편의시설 인접  
편리한 교통환경 도령로, 일주서로, 사무공원 사거리 등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  
풍부한 임대수요 제주 내 1~2인가구 최다 거주지, 인근 17,000여명 이상의 배후수요

문의 (02) **6022-1669**

사행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일성건설(주)**  
위탁사 **아시아산업(주)**



\* 한국자산신탁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070012 · 사업지 위치 : 제주도 연동 260-30번지외 2필지 · 건축면적 : 16,337.868㎡ · 총호실 수 : 208실  
· 준공/입주예정일 : 2019년 5월 예정, 분양신고 제주시청2016-건축과-분양신고-9호  
\* 상기 CG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또는 표기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교통계획 및 개발계획 등은 지자체, 사업체의 사업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1-416787 · 예금주 : 한국자산신탁  
· 동호수 지정 청약금 100만원 ※ 미 계약시 청약금 전액 환불가능







# 조선명탐정·흥부 ... 극장 갈 이유 너무 많아~

## 설 연휴 볼 만한 영화

국내외 화제작들 대거 개봉  
故 김주혁의 유작 '흥부'도  
'패딩턴2' 패밀리버스터 노려

설 연휴, 다채로운 영화들이 개봉해 극장가로 관객의 발길을 이끈다. 마블의 히어로 무비 '블랙 팬서'와 드라마틱한 도주극을 다룬 한국영화 '골든슬럼버' 그리고 설 연휴 시리즈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까지 국내외 화제작이 대거 개봉해 관객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14일 개봉한 영화 '블랙 팬서' (감독 라이언 쿨러)는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을 구축한 마블이 선보이는 새로운 슈퍼 히어로다.

13일 오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예매를 집계해 따르면 '블랙 팬서'는 점유율 65.7%, 예매관객수 29만4326명을 기록하며 예매율 1위를 차지했다.

영화는 와칸다의 국왕이자 새로운 어벤저스 멤버로 합류한 '블랙 팬서' 티찰라(체드윅 보스만)가 희귀 금속 '비브라늄'을 둘러싼 전세계적 위협에 맞춰 전쟁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마블의 가장 혁신적인 히어로'라 불리는 '블랙 팬서'는 마블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영화로 마블 특유의 유머와 화려한 액션이 주는 재미와 함께 탄탄한 스토리 라인까지 갖춰 마블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



블랙팬서



골든슬럼버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



흥부



패딩턴2

줄 전망이다.

같은 날 개봉한 '골든슬럼버' (감독 노동석)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기대작이다. 최근 다양하고 인상적인 필모그래피로 한국영화계에서 종횡무진 활약중인 강동원 주연의 '골든슬럼버'는 일본 작가 이사가 코타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블랙 팬서'에 뒤이어 2위로 예매율을 달리고 있지만, 격차는 크다. 11.6%다.

해당 작품은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통령 후보 암살 사건의 범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택배기사 건우(강동원)가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도주극을 담는다. 권력에 의해 한순간에 피해자가 된 소시민의 도주, 그와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친구들의 우정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스토리 구성은 관객에게 신선함을 안길 예정. 강동원, 한효

주, 김의성, 김성균 등 대한민국 대세 배우들의 호연과 드라마틱한 전개로 '블랙 팬서'와 함께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개봉한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이하 '조선명탐정3' / 감독 김석운)이 설 연휴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지난 주말 1246개 스크린에서 63만 1283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조선명탐정3'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사건 앞에서 김민(김명민)-서필(오달수) 콤비가 의문의 여인 월영(김지연)을 만나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그린다.

조선시대에 벌어진 '흡혈귀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소재도 특별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김민-서필 콤비에 또 한명의 주인공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세 사람의 찰떡 케미를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

또 한편의 사극 '흥부' (감독 조근현) 역시 설 연휴 극장가에서 만날 수 있다.

'흥부'는 현재까지 전해내려오는 흥부전을 재해석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그린 영화다. 붓 하나로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만든 천재작가 흥부(정우)가 남보다 못한 두 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상을 뒤엎듯 소설 흥부전을 집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JTBC 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 '폼 위있는 그녀'로 브라운관을 휩쓴 백미경 작가의 첫 스크린 도전작으로 백 작가가 '흥부'를 통해 스크린까지 압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흥부'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주혁의 유작으로도 관객이 손꼽아 기다

려온 작품. 김주혁은 '흥부전'의 실제 주인공이자, 백성들의 정신적 지도자 조혁 역을 맡았다. 조혁은故 김주혁처럼 따뜻한 심성과 울음은 독심을 가진 인물이라 스크린에 되살아난 김주혁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로튼 토마토 신선도 100%, 영국 박스오피스 3주간 1위에 빛나는 '패딩턴2'로 설 연휴 극장가 최고의 패밀리버스터 자리를 노린다. 러틴 생활 3년차, 자칭 알바 마스터가 된 스타콤 패딩턴이 도둑으로 몰려 감독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펼쳐진다.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작품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 8일 개봉해 절찬리 상영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평창올림픽 메달경기도 가족과 함께

2018년 설은 한층 풍성해질 전망이다. 연휴 기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올 연휴, 국가대표들의 짜릿한 순간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설 연휴의 시작인 15일에는 6개 종목에서 메달이 결정된다. 메달 레이스의 시작은 알파인스키의 남자 활강, 여자 대회전 2부이다.

오전 11시 30분 열리는 남자 활강에는 '기대주' 김동우가 출전하고, 오후 1시 45분 열리는 여자 대회전 2부에는 또 다른 '기대주' 강영서와 김소희가 출전한다.

뒤를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크로스컨트리 여자 10km 프리 부문에서 이채원 과 주혜리가 메달 사냥이 나선다.

15일의 마지막 메달은 오후 9시 30분 열리는 루지 팀 계주 경기에서 나온다.

16일에는 오후 3시 열리는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프리 종목에서 금, 은, 동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황대헌(오른쪽)이 13일 오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예선에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달이 갈린다. 김 마그너스와 김은호가 출전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여성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단, 메달색이 결정되는 종목은 모두 저녁 늦게 열린다. 연휴의 대미를 장식할 종목은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다. /김민서 기자 min0812@



CGV

조조·2편 이상 관람 할인 이벤트



롯데시네마

예매번호 '로또'로 상품권 지급



메가박스

강철비 등 대작 영화 5000원 관람

## 관객 유혹하는 영화관... 각종 이벤트 풍성

### ◆CGV, '영화는 최소 2편각'

CGV가 설 명절을 맞아 특별 할인 혜택과 풍성한 선물이 가득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라인에서 영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일찍 일어나는 새는 조조각' 이벤트를 실시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조조각'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과 16일 이들 간 낮 12시 이전에 시작하는 일반 2D 영화를 6000원~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다. 14일까지 낮 12시부터 2시까지 CGV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영화는 최소 2편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에 서로 다른 영화를 2편 이상 관람 시 영화 1+1 관람 쿠폰을 증정한다. 영화 2회 관람 시에는 주중 일반 2D 1+1 쿠폰, 3회 관람 시에는 주중 IMAX 1+1 쿠폰, 4회 이상 관람 시에는 주중 4DX 1+1 쿠폰을 제공한다. CGV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이벤트 기간 내 영화 관람 누적 횟수가 자동 적용된다. 1

+1 쿠폰은 23일 전까지 일괄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3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설을 맞아 CGV 씨네드쉐프(CINE de CHEF)는 CGV 씨네드쉐프 상품권 세트(10만원권 2매)를 구매한 고객에게 씨네드쉐프 전용 영화관람권 2매를 선물로 증정한다. 본 이벤트는 총 200세트에 한해 선착순으로 증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씨네드쉐프 압구정, 용산아이파크몰, 센텀시티로 문의하면 된다.

### ◆롯데시네마, LOTTO 이벤트

롯데시네마에서 설 연휴를 맞아 예매번호 당첨 이벤트인 '설 맞이 로또(LOTTE CINEMA LOTTO)'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5~18일 롯데시네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 예매한 고객 전원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는 22일에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발표된다.

예매번호 7자리가 당첨번호와 일치 시 롯데상품권 100만원이 지급되며, 1등 당첨 번호와 마지막 자리 수가 불일치 하지

만 보너스 숫자와 일치하는 1명의 고객에게 50만원 상당의 영화 관람권 세트가, 1등 번호와 마지막 자리 수만 불일치하는 8명의 고객에게 20만원 상당의 영화 관람권 세트가 상품으로 제공된다.

### ◆메가박스 '조심조심'·'메가박스'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설 연휴 맞이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오는 15~18일 '10시에는 조심조심 7000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전 10시 이전의 조조 영화와 오후 10시 이후 심야 영화를 7000원에 인원과 횟수에 상관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특히 심야 영화의 경우 최대 3000원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대작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메가박스 드리는 福 터지는 새해 선물' 이벤트도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선정된 대작 영화는 '강철비'와 '그것만이 내 세상', '불한당', '타이타닉', '1987'이며 해당 영화는 이벤트 기간 동안 5000원에 관람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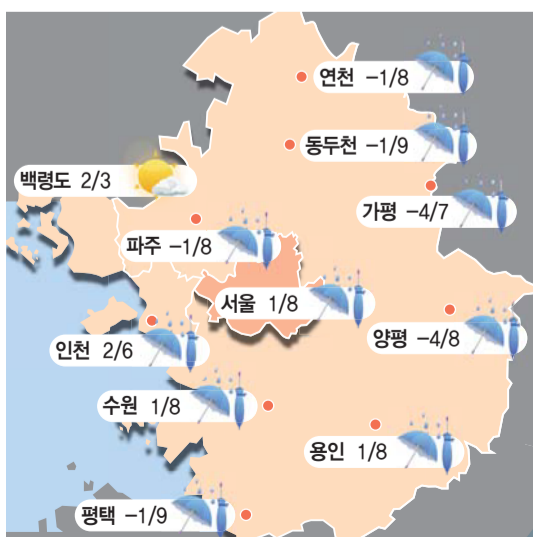
해돋이 / 07:23 | 해질 / 18:10

2월 14일

음력 : 12월 29일

수도권 날씨  
1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마켓] 유상호·김해준 등 장수 CEO 많은 증권가 "실적이 곧 연임" 12

[중소기업] 코웨이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 올해도 물 흐르듯 성장? 14



고향 가는길

# 3000만명 대이동... 귀성길 15일, 귀경길은 16일 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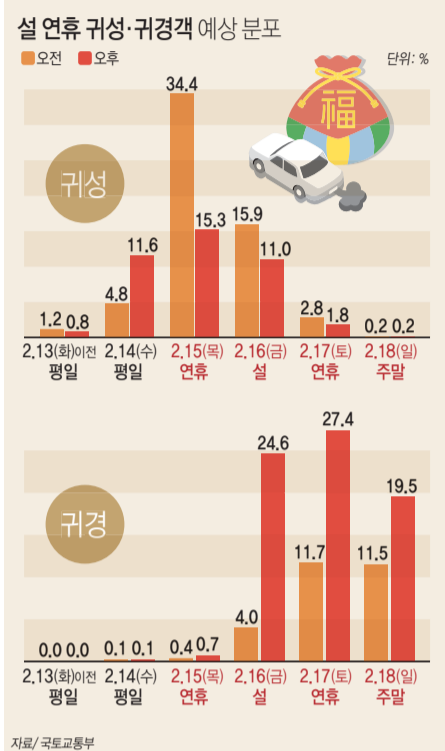
## 하루 평균 655만명 이동 예상 안전 위해 카메라 드론 운영도

고향가는 길은 연휴 첫날인 15일 오전에, 돌아오는 귀경길은 설 당일인 16일 오후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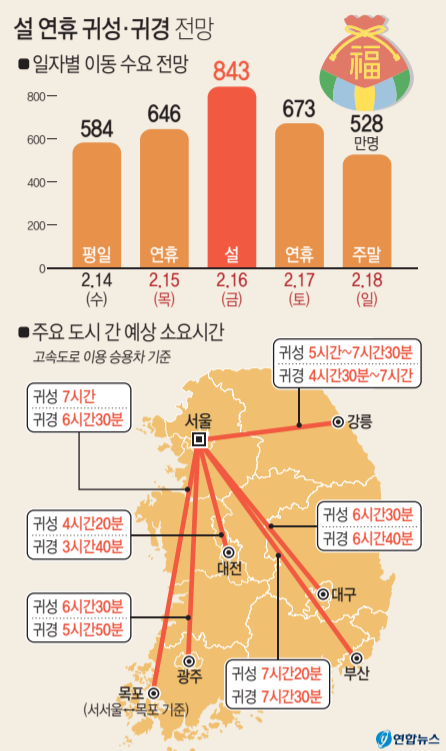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평균 소요시간은 통행료 면제 등 영향으로 지난해 설보다 최대 40분 증가해 ▲서울→부산 7시간 20분 ▲서울→광주 6시간 30분 ▲부산→서울 7시간 3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향을 받는 ▲서울→강릉 구간은 5시간~7시간 30분으로 지난해보다 1시간 50분~4시간 20분 증가하고 ▲강릉→서울은 4시간 30분~7시간으로 1시간 10분~3시간 40분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교통대책기간인 설 연휴(14~18일) 기간 전체적으로는 총 3274만명, 하루 평균 65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80% 가량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424만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에도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5일 0시부터 17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고속도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오는 14~18일 고속도로 경부선(한남대교 남단~신탄진)과 영동선(신갈JCT~여주JCT, 강릉JCT~대관령IC)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이는 평상시 주말(오전 7시~오후 9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간보다 4시간 연장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9~25일)이 겹치면서 영동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차량 흐름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험요인을 없애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했다.

도로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설 연휴 기간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10대를 운영할 것이며 경찰헬기 14대, 암행 순찰차 22대 등을 투입해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4~18일 5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집중 관리에 나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인턴기자 yw964@metroseoul.co.kr

## “차량 무상점검 받고 안전한 귀성길 되세요”

###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등 엔진·냉각수 등 장거리 운행 위한 점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선 연휴를 맞아 서비스센터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타이어 마모와 차량 점검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전국 서비스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서비스'를 시행한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 및 1370개 블루핸즈,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보레가 설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설 연휴 특별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현대·기아차는 서비스 기간 차량 정비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배터리·냉각수·타이어 공기

압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무상으로 점검한다. 각종 오일류 및 워셔액 보충 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블루핸즈를 방문한 고객의 경우 차량관리 앱 마이카스토리를 설치한 후 점검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제시하면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검 후 유상 수리를 해야 할 경우 1회에 한해 1만원 공임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한국지엠과 쌍용차, 르노삼성도 오는 14~15일(하행선)과 16~17일(상행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총 9개소 18개 코너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들 업체는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고 오일류 및 워셔액 보충, 와이퍼 블레이드 무상교환 등을 해준다.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까운 정비소를 안내하는 한편 인근 지역 고장 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타이어업계도 1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타이어 무상 안전점검에 나선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는 황성·여주·마장·진영·동명·용인 휴게소 등지에서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상태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해준다. 정비 불량 올바른 타이어 사용·관리방법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 설 맞이 이벤트 풍성... 귀성길 지루함 날려줄 게임은

### 게임업계 다양한 업데이트·이벤트 강화된 보상·아이템 획득 기회도

민족 최대 명절인 이번 설 연휴에는 총 3274만명이 이동해 하루 평균 655만 명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꽉 막힌 고속도로는 곤욕일 수밖에 없다. 고향 가는 고속도로나 기차 안에서 각종 이벤트가 풍성한 게임들로 지루함을 덜어보는 것은 어떨까.

13일 게임업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다양한 자사 게임에 다양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마련해 이용자 눈길 끌기에 나섰다.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이드&소울'은 지난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설 이벤트를 실시

한다. 이용자는 신규 이벤트 던전 '홍실의 연구실'의 일일 퀘스트 완료 보상, 300 PC방 포인트, 블소 공식 페이스북 덕담 이벤트 당첨 선물로 홍실의 답례품을 얻을 수 있다. 이용자가 홍실의 답례품을 열면 '홍분홍의 토피'와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넷마블게임즈도 명절을 맞아 '모두의 마블' 등 자사 인기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이벤트를 열었다. 설날 맞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 모바일 보드게임 '모두의 마블'에서는 '봄슬레이맵'인 신규 맵과 나와 비슷한 실력의 이용자와 매칭되는 '모두의랭킹'이 추가됐다. 캐기만 해도 다이아(게임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다이아 광산도 새로 선보였다.

NHN엔터테인먼트도 설날을 맞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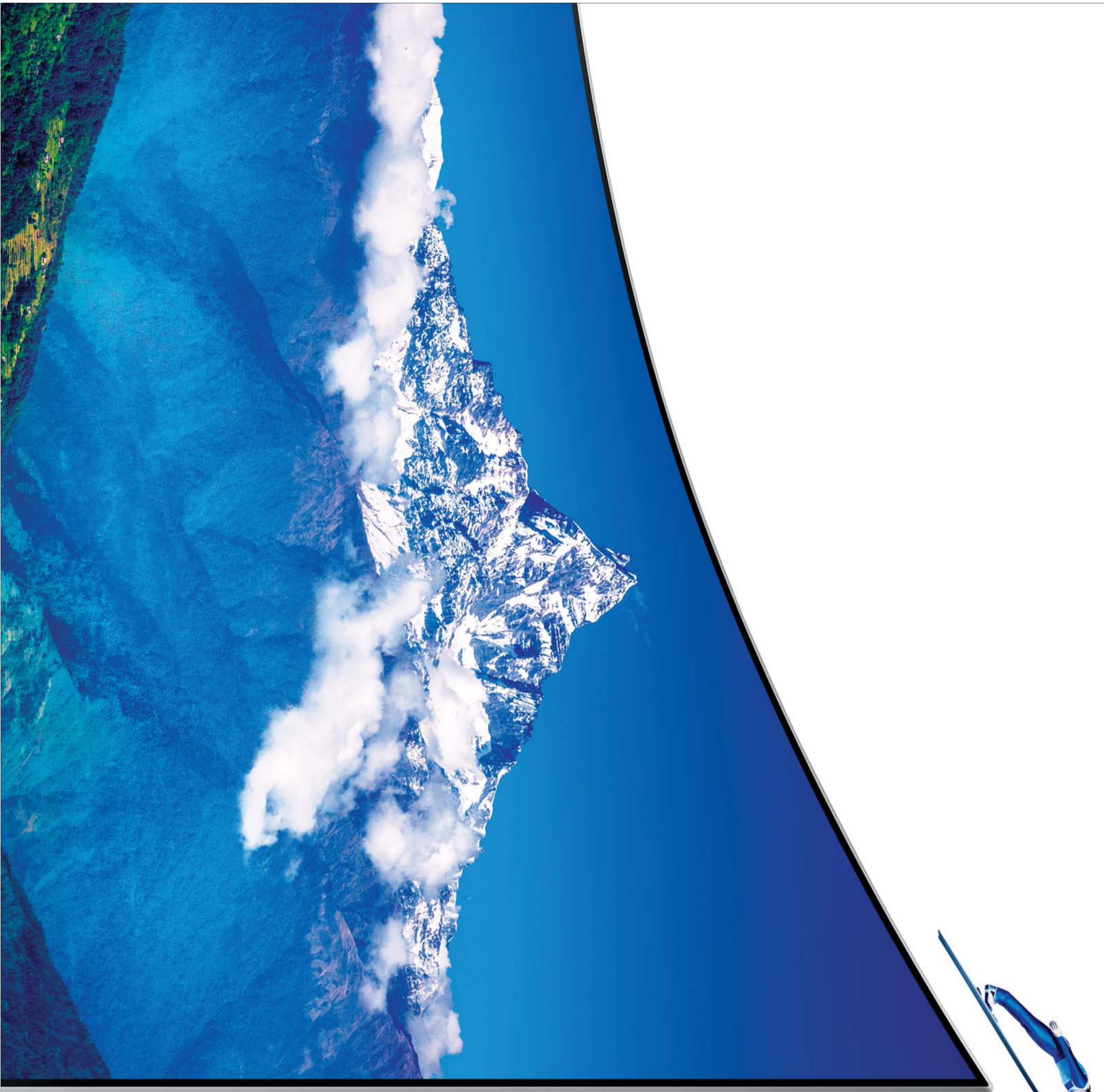
사 인기게임 8종의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바일 웹보드 게임인 '한게임 포커'와 '한게임 슷다M'은 14일부터 18일까지 피크타임 접속 이벤트를 진행한다. 퍼즐 게임인 '프렌즈팝'은 설날 한정판 5성 프렌즈 4종을 출시해 14일부터 7일간 '황금프로도의 웃음이 월드' 이벤트를 연다.

게임빌은 자사 대표 RPG 4종으로 프로모션을 연다. 최신작인 '로열블러드'에서는 18일까지 5·15·25·45 레벨 달성 시 선물을 지급하는 '레벨 달성 이벤트'를 실시한다.

웹젠도 게임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은 18일까지 접속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호칭 북주머니' 등 강화된 보상을 선물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12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2004년~2017년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2018 FutureSource Consulting



### 시간이 지나도 화질은 그대로 미처,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오래 보아도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잔상이 남는 등  
화질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QLED. 평창 올림픽은 물론  
그후의 올림픽까지 초대형 QLED의 변치 않는 화질로 100% 즐기세요

100% TV

# 삼성 QLED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TV 선정 기념  
삼성 QLED TV 특별전 (2018.01.19 ~ 2018.02.28) | 오프라인 매장에 한함

\* 100% 평면 패널 구현 인증 획득 (OO-1937) | 평면 QLED 광역 휘도 향상 기술 2016년 12월